울릉도에 울려퍼진 '독도 아리랑'

진각종, 울릉도 제20회 회당문화축제 성료

밴드 억스 · 편승엽 등 무대
10년 만에 저동항에서 콘서트
독도 특별방문 · 구름빵 공연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0회 회당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독도아리랑 콘서트'가 8월 2일 오후 7시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개최됐다.

2012년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금 저동항에서 열린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진각복지재단 산하 꿈나무어린이집 원아들의 난타 퍼포먼스와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독도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황효숙 울릉도 아리랑 보존회장의 '울도 선경가'와 뮤지컬 그룹 아티스틱 컴퍼니가 30여 분간 다양한 뮤지컬 넘버를 선보여 객석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국악가수 권미희 씨는 '배 띄워라', '인연', '망부석'으로 이어지는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해 객석의 앵콜 요청으로 '내 사랑 주문진'을 '내 사랑 울릉도'로 개사해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진각종과 인연이 깊은 가수 편승엽 씨도 '찬찬찬', '기분좋은 사람아', '안동역에서', '애수' 등의 무대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콘서트의 대미는 JTBC에서 방영된 풍류대장에 출연한 밴드 '억스(AUX)'가 장식했다. 새타령, 태평가, 풍년가, 꽃타령, 사랑가, 홀로 아리랑, 까투리, 박타령, 품바 등의 민요를 자신들만의 색깔로 편곡해 선보인 억스의 무대로 울릉도의 여름밤이 무르익어 갔다. 끝으로 독도아리랑 콘서트에서 빠질 수 없는 회당문화축제 자원봉사단의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과 불꽃놀이로 콘서트는 화려하게 마무리됐다.



제20회 회당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독도아리랑 콘서트'가 8월 2일 오후 7시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콘서트에 앞서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와 독도를 기반으로 나라사랑과 국민화합을 서원하는 축제이다. 회당문화축제가 스무 번 열리는 동안 의료진과 함께한 의료봉사 활동, 영화 상영 등을 통한 문화활동, 주민 돕기 봉사활동 등 숱한 자취를 남겼다"며 "20회를 맞아 종단은 보다 더 겸허한 자세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순수, 열정, 감동이 있는 축제로 승화시켜 축제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축사에서 "회당문화축제의 20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 회당문화축제는 문화가 취약한 울릉도에서 도민들에게는 큰 위로로, 울릉도를 찾은 이들에게는 이 곳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다"며 "사람과 문화가 있는 축제, 울릉도와 독도를 노래하는 축제라는 회당문화축제의 정신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김대현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종과 한국불교가 지닌 호국불교의 정신을 축제의 모습으로 승화시켜 온 것으로 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당문화축제가 진각종과 울릉도가 문화로 함께 지역의 경쟁력을 담아내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 남진복 경북도의원도 축사를 전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전을, 이강덕 포항시장,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 남구 · 울릉군),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 북구)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또한, 20회를 맞은 회당문화축제를 기념하고자 역대 출연자인 가수 김경호 씨와 예술감독 이상종 대표, 여래심인당 주교 효인 정사,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 최윤정 회장(꿈나무어린이집 원장), 울릉문화원 최수영 원장 등 회당문화축제를 만들고, 무대에 오른 다양한 사람들이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20회 동안 회당문화축제를 이끌어 온 예술감독 이상종 스태프 미래 대표와 김창민 자원봉사단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제20회 회당문화축제는 8월 1일 금강원 성역화 지진불사를 시작으로 2일에는 '독도 특별방문'과 '독도아리랑 콘서트'로 진호국가불사와 나라사랑의 메시지를 다시금 새겼으며, 4일에는 울릉도 내 어린이와 부모를 초청해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특별공연을 개최했다.

"동체대비 실천 대종사 유지 이어가겠다"

금산사, 태공당 월주 대종사 원적 2주기 추모다례
문도들 대종사 삶, 사상 기려
월주 대종사 부도탑 제막식도

조계종 제17대, 제28대 총무원장과 원로의원을 지내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동체대비(同體大悲) · 요익중생(饒益衆生)의 삶을 실천했던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원적 2주기 추모다례재가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봉행됐다. 다례재 후에는 태공당 월주대종사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됐다.

금산사(주지 일원)는 7월 30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태공당 월주대종사 원적 2주기 추모다례재와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태공당 월주 스님은 본래 고향의 자리로 돌아가 있지만 모학산에 높이 뜬 밝은 달빛이 돼 오늘 이 자리를 비추고 있다"면서 "한국불교사의 시대적 질곡을 함께 짊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고 또 덕성스럽게 다 처리하면서 오늘날에 한국불교가 이런 정도의 반석으로 나아가는 데 대원력 보살의 역할을 하셨다"고 회고했다.



금산사는 7월 30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태공당 월주대종사 원적 2주기 추모다례재와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어 "근세 한국 불교사의 거인이요 또 사회적 큰 지도자이자 국가 원로로서 주어진 소명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고 추모했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중생들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고 즐거움을 더해주신 큰 스님의 자비행 실천은 오늘에 이르러 더욱 그리워지고 사무친다"며 "큰 스님의 보현행원과 자비행은 우리 모두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고 깨달음의 실천도량 금산사에 거듭 나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도 추모사를 통해 "사바세계에서 펼쳤던 월주 대종사의 자비행은 종교 간의 교류를 통해 너와 나가 아닌 우리로서 협력과 화합의 기반을 다졌고 우리나라를 넘어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해 오셨다"면서 "김제 시민들과 저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큰스님께서 직접 행하신 깨달음의 사회화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문도를 대표해 도영 스님은 "은사스님은 40년 전에 보살정로라는 책을 내시면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펼치셨고 사회를 맑게하겠다는 원력으로 시민사회단체대표를 맡아 활동을 해오셨다"며 "스님의 생전 유지를 이어받아 후학들은 스님의 뜻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모다례재를 마친 사부대중은 금강문 앞 동산에 조성한 부도탑의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제막된 부도탑에는 평소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한반도 지도, 우물, 발우, 경전 등을 새겨넣었다.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스님의 부도탑 제막을 맞아 스님의 삶을 기리면서 우리의 미래에도 스님의 삶을 살아가자는 마음을 모아 부도탑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도영, 도원, 도법, 평상, 원행 스님 등 대종사의 직계상좌스님들과 원로의원 원행 스님(월정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중앙승가대총장 월우 스님,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도은 전북경제부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조배숙 국민의 힘 전북도당 위원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유지를 기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자비실천' 수재의연금 모연 확대

인천교구 · 서울 백련사 잇따라 행사 열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종단차원의 자비행을 선포한 태고종 총무원에 발맞춰 지역교구와 사찰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먼저 태고종 인천교구종무원(종무원장 능해)은 7월 30일 인천 용궁사 대웅전에서 수재민 돕기 수해복구 의연금 모금법회를 봉행했다. 앞서 7월 2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원장 및 주요기관장 종무원장 연석회의에서 총무원장 전국시도교구종무원 순회 첫 방문지로 결정된 인천교구는 이날 집중호우로 발생한 민간인 피해와 그로 인한 사망자를 애도하며 수해복구 의연금 모금 법회를 시작했다.

법회에 참석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에서 "종단 수해복구 성금 모금에 인천교구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태고종이 한국불교 적자종단으로서 세상의 고통과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진 스님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우리 종단에서 마련한 성금이 복구의 큰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종무원장 능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성대히 봉행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이 · 취임식이 원만히 회향돼 대내외적으로 태고종의 위상이 높아졌다"면서 "이 기세와 힘으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데도 종단의 원력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서울 백련사도 8월 9일 무량수전 앞마당에서 백중기도에 동참한 불자들과 함께 수재의연금 모금에 나섰다. 모금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 주지 동허 스님, 재단법인 태고종 불교전법원 이사장 운암 스님, 태고종 원로의원 설산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힘을 보탰다.

이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백련사는 종단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사찰"이라며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까지 감안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있다. 사부대중이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백련사 주지 동허 스님은 "세상의 기후변화에 따라 악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눔 실천에 앞장서시는 상진 스님께 힘을 보태고자 백련사 대중이 뜻을 모았다"며 "백련사는 예부터 계속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를 매일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故차일혁 경무관 지혜, 세상에 알리겠다"

화엄사, 차일혁 경무관 첫 추모다례재 봉행

6.25전쟁부터 화엄사를 지킨 故 차일혁(1920~1958) 경무관에 대한 첫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사진〉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는 8월 10일 각황전에서 한국전쟁 중 전란의 화마 속에서 지리산 화엄사를 지킨 故 차일혁 경무관의 서거 65주기를 맞아 다례재를 봉행하고 그의 공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故 차일혁 경무관은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빨치산 토벌 작전 중 상부로부터 화엄사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게 됐다. 그는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부에서 내린 명령이기에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천년고찰을 태울 수도 없기에 고민 끝에 부하들을 시켜 화엄사의 문짝들만 떼어내어 불태웠다.

당시 故 차일혁 경무관은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충분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문화재를 지키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 오늘날 화엄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이날 추모 다례재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차소영 故 차일혁 경무관 기념사업회 선양회장, 김순호 구례군수, 유토연 구례경찰서장, 유시문 군의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덕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화엄사를 비롯해 금산사, 백양사, 선운사, 쌍계사, 천은사 그리고 덕유산 사찰을 비롯한 수많은 천년 고찰들이 고인의 지혜로운 결단으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며 "고인의 업적과 유지를 후손과 사찰만 알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알려 그분의 정신이 후대에까지 널리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화엄사는 지난 1998년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의 발원으로 조계종과 호남지역 본사들이 참여해 화엄사에 공덕비를 조성했으며, 2013년 후손인 차길진 법사의 청으로 지금의 공덕비를 새롭게 세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관음사, 예천군에 수해복구 성금 전달

8월 9일 예천군청서 전달식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에 부처님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대관음사는 8월 9일 예천군청을 방문해 김학동 군수에게 수해복구 성금 1천100여 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된 성금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사중스님과 전국 도량 신도 등 사부대중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권영화 한국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한국불교대학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냈다"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철완 대구경북지사장

서원노인복지관 '실버지구지키미' 전개

아이스팩 등 모아 환경보호

금산사 복지원(대표 일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원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실버지구지키미'를 결성하고 환경보호운동에 나서고 있다.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동찬)은 8월 14일부터 재활용품을 모으는 '알록달록 모으깅'과 버려지고 있는 '아이스팩 모으깅' 활동을 통해 지구 환경보호에 나선다.



서원노인복지관장 동찬 스님은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선배 시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나서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모기장 속에서 영화음악 감상을

화엄사, 제3회 모기장음악회 개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한 여름밤 산사에서 모기장을 치고 영화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8월 5일 경내 화엄원 앞마당에서 '제3회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500여 명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구례군민과 마산면 지역주민, 해외이주민, 구례지역 청소년 학생, 구례군 마산면 의용소방대, 구례군 체육회, 지리산 상가 주민들을 초청해 지친 여름을 이기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일반 시민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를 마련한 덕문 스님은 "무더운 여름날 어떤 영화음악을 통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마음을 전할까 고민했다"며 "지쳐있는 마음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광 구례부군수는 축사를 통해 "제3회 모기장영화음악회를 축하드리며, 구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모기장음악회는 유정우 박사(흉부외과 전문의, 클래식 음악 평론가)와 함께 영화 속 오페라의 명장면을 골라 해설과 영화,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한편 모기장영화음악회를 마치고 참석한 참석자들은 보제루로 이동하여, '세대교차 반딧불 별빛 더하기' 프로그램을 즐겼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